

전남대, 세계적 SW기업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선도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격차, AI 기반 제조 전환 압박을 동시에 겪는 지역 제조 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적 제조혁신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품(AutoForm)'이 전남대학교와 손잡고 협력 마련에 나섰다.

총 6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무상 기증과 함께 호남권 최초의 제조혁신 플랫폼을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일 오토품엔지니어링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조 DX·AI 기반 교육·연구·기업 지원을 전담할 '오토품 글로벌 산업기술거점센터'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오토품은 금형 설계·성형 해석·공정 최적화·디지털 트윈 등 제조 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스위스 본사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글로벌 자동차·전자·철강업체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제조혁신 플랫폼이다.

이번 기증으로 전남대는 오토품 전 모듈 20개피(약 600억원 상당)를 확보했다. 국내 대학에 제공된 산업용 소프트웨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대는 이를 통해 학부부터 대학원 까지 실제 산업 현장 수준의 설계·해석 실습환경을 구축하게 됐으며,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제조 DX·AI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프랑수아 미셸 오토품 엔



지난 2일 열린 '오토품 글로벌 산업기술거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AI융합대학에 '오토품 글로벌 산업기술센터' 개소

600억원 규모 기증…자동화·금형 등 인력난 해법

삼성·호원·현대하이텍 등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지니어링 CRO와 조영빈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 호원, 현대하이텍, 기광산업, 신영하이테크, 승광 등 주요 지역 제조기업 관계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금형 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제조업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며 인력난·고령화·기술전환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오토품이 호남권 파트너로 전남대를

지역 기업들은 "금형·자동화 제조업의 인력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오토품과 전남대의 협력은 지역 제조업을 지원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전남대는 지역 제조업 혁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대학교 이근배(원쪽) 총장과 조영빈 오토품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가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택한 배경도 분명하다.

오토품 측은 "광주·전남은 금형·자동

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전남대의 추진력과 지역 산업의 필요성이 맞물려 기증과 거점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실질적 산업 혁신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제조 DX 인재 양성 △지역 기업 맞춤형 R&D 지원 △재직자·여성 엔지니어 전문 교육 △AI 기반 공정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디지털 트윈 실증 등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약점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성균관대·창원대·경일대와 함께 전국 4대 오토품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적 제조 DX 인재 양성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조영빈 오토품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는 "세계 제조업은 이미 계산 기반 성형 해석과 AI 기술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는 인력난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대는 이를 해결할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연계성을 모두 갖춘 대학"이라고 평가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역 제조업은 인력난과 기술 전환이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협약은 전남대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오토품·광주시·산업계와 함께 제조 DX·AI 인재를 길러 호남 제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전남 청년, 수도권 이동시 소득 28% 급증

청년 인구이동 소득변화

2282만→2922만원 증가

1만3000명 수도권 이동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을"

광주·전남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 시 소득이 평균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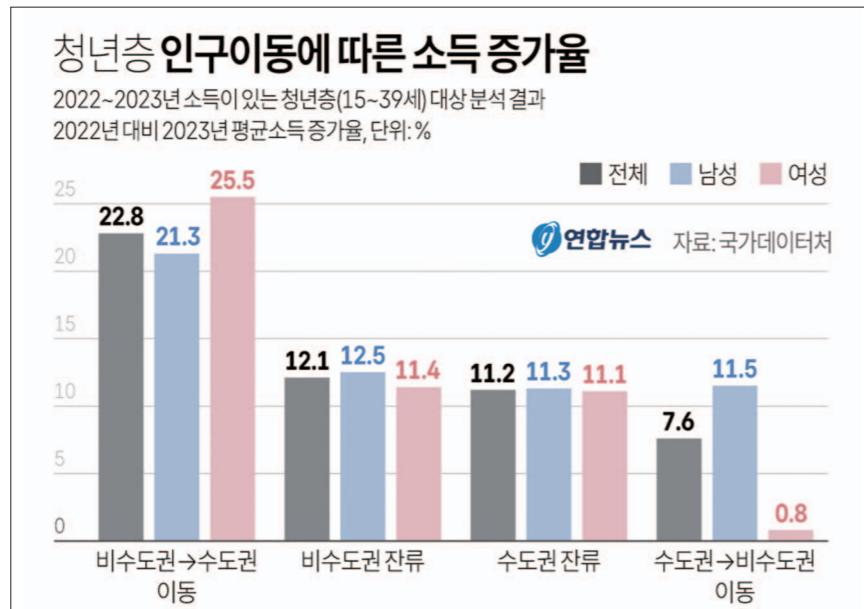
3일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광주·전남)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평균소득이 28% 증가했다.

2022년 평균소득 2282만원에서 2023년 2922만원으로 640만원(27.8%) 올랐다.

수도권을 포함 권역을 이동한 서남권 청년의 소득증가율은 20.5%로, 평균소득은 2022년 2423만원에서 2023년 2932만원으로 올랐다. 서남권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은 31.7%다.

2023년 서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1만3000명이다.

데이터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이 두드러지



는 만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크게 상승했다.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2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이보다 낮은 7.6%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 중 34.1%는 소득분위가 상향 이동했다. 상대적으로 더 고소득인 분위로 '계층 상향'했다는 것이다.

상향 이동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경우 24.1%로 이보다 낮았고, 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경우 각각 23.0%, 22.7%로 나타났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경총, 오동찬 소록도병원장 초청 포럼

내일 흘리데이인 광주호텔…한센인 역사 등 강조

광주경총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5일 흘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원장(사진)을 초청해 '나의 가족 나의 한센인'을 주제로 제1706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동찬 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광양보건대학 겸임교수를 지냈고 제34회 아산상 의료봉사상, 대통령 표창, 제2회 성천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또 KBS, MBC, EBS, CBS 등 다수 방

송에도 출연했다.

오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의 역사, 차별과 편견, 치료, 세계적 분포 등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포럼은 3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온 오동찬 원장을 초청, 정상과 비정상 인체 행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금요조찬포럼 참석 및 화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해 주면 된다.

한편 광주경총은 현재 876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고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다.

저명인사 및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모집기간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OOO명(선착순)
초청강사 정치, 경제, 교수, 법조, 의료, 문화예술, 지방인사 초청 특강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특급호텔 석식 제공)
학사운영 1년 과정 (1학기 : 3월~6월 / 2학기 : 9월~12월)
해외연수 2026년 여름방학 중 (예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접수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접수방법 당시 소정방식(E-mail : gnlbo2@daum.net / FAX. 062-370-700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광남일보